

1.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 ㉡ 하나의 뜻으로 해석되는 문장을 사용해야 한다.
- ㉢ 조사, 어미, ‘-하다’ 등을 지나치게 생략하지 않는다.
- ㉣ 영어 번역 투를 삼가야 한다.

- ①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30명을 선출되었다.”를 ㉠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30명이 선출되었다.”로 수정한다.
- ② “시장은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를 ㉡에 따라 “시장은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시민의 안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로 수정한다.
- ③ “정부는 노인 복지 종합 계획을 수립,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를 ㉢에 따라 “정부는 노인 복지 종합 계획 수립하여,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로 수정한다.
- ④ “조선은 태조 이성계에 의해 건국되었다.”를 ㉣에 따라 “조선은 태조 이성계가 건국했다.”로 수정한다.

2. <개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개요>—

○ 제목: 진공청소기 품질 문제에 따른 소비자 불만 개선 방안

I. 서론: 현황 및 문제점

- 1. 일부 제품에서 모터 불량으로 인한 소음 발생 및 흡입력 저하 등 품질 결함 발생
- 2. 온라인 고객센터 접수 및 처리 지연으로 소비자 불만 증가

II. 진공청소기 품질 결함 및 소비자 불만의 원인

- 1. 해외 생산 공장에서 품질 관리 미흡으로 불량 제품 발생
- 2.

III. 진공청소기 품질 결함 및 소비자 불만 문제해결 방안

IV. 결론: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① 동일 제품 전량 회수 후 수리
- ② 고객센터 인력 부족에 따른 대응 지연
- ③ 생산 단계 품질 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점검
- ④ 소비자 민원 해소 및 제품 신뢰도 제고

3. 다음 글의 ‘관계론적 접근’에 해당하는 관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인공지능 로봇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논의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부터 살펴 보아야 한다.

관계론적 접근에 따르면, 도덕적 지위는 객관적인 속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이 맺고 있는 다양한 일상적 관계의 방식 속에서 정해지는 문제이다.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는 인간과 해당 대상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 작용이나 관계 맺기라는 과정의 토양 위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로봇의 도덕적 지위도 그것들이 처해 있는 맥락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의 관계를 통해서 보아야 한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 로봇은 동료들과 전우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또 가정이나 요양원에서 만난 감정 로봇은 가족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 어떤 이는 로봇에게 느끼는 감정은 로봇이 만들어 낸 인위적인 공감 행위에서 비롯되는 가짜 감정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 세기에 걸쳐 인간과 관계를 맺어 온 가축들이나 반려동물들의 경우처럼 인위적 공감도 거짓된 감정으로 볼 수 없다.

- ① 인공지능 로봇이 지능과 의식을 갖추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도덕적 지위를 결정해야 한다.
- ②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이 만든 도구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 ③ 인간과의 상호 작용과 그 맥락을 중심으로 로봇의 도덕적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
- ④ 인공지능 로봇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로봇의 도덕적 지위를 판단할 수 있다.

4. 논증이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영희는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다. 영희는 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영희가 모든 과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 ②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던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살인 범죄는 16%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사형제 폐지는 강력 범죄의 발생 빈도를 높인다.
- ③ 우리나라는 폭력 행사를 쉽게 하는 사회이다. 방승이나 영화에서 폭력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런 우리 사회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 ④ 지난해 한국에서 간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전체 사망자의 10%였으나 올해는 9%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올해 한국에서 간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었다.

5. 다음의 대화를 분석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사회자: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해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에너지 수급의 어려움 및 유류비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의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가능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 이 국장: 즉각적으로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류세를 기존보다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 ㉢ 김 국장: 유류세를 인하하는 만큼 소비자 가격을 낮추지 않고, 판매처에서 이윤만 늘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수요를 직접 조절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차량 5부제를 시행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합니다.
- ㉣ 사회자: 유류세 인하가 판매처의 이윤으로만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서 이 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 ① ㉠에서 사회자는 토의 주제와 발언 순서를 지정해 주고 있다.
- ② ㉡에서 이 국장은 유류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에서 김 국장은 소개된 방안의 문제점과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에서 사회자는 언급된 내용에 대한 참여자의 추가 의견을 요구하고 있다.

6.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반의 관계는 의미상으로 대립되는 단어를 가리키며 정도 반의어, 상보 반의어, 방향 반의어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먼저, 정도 반의어는 정도나 등급에 있어서 대립되는 단어 쌍으로서, 전형적인 보기는 ‘길다/짧다, 덩다/춥다’ 등과 같은 형용사 무리이다. 다음으로, 상보 반의어는 반의 관계에 있는 개념적 영역을 상호 배타적인 두 구역으로 철저히 양분하는 단어 쌍으로서, 전형적인 보기는 ‘합격하다/불합격하다’ 등이다. 한편, 방향 반의어는 맞선 방향을 전제로 하여 관계나 이동의 측면에서 대립을 이루는 단어 쌍으로서, 전형적인 보기는 공간적 관계의 ‘위/아래’, ‘오른쪽/왼쪽’, 인간 관계의 ‘스승/제자’, 이동의 ‘가다/오다’ 등이다.

- ① ‘참/거짓’의 경우 상호 배타적인 두 구역으로 철저히 양분하는 상보 반의어이다.
- ② 정도 반의어, 상보 반의어, 방향 반의어 모두 의미상으로 대립되는 단어를 의미한다.
- ③ ‘쉽다/어렵다’의 경우 정도나 등급에 있어서 대립되는 정도 반의어이다.
- ④ ‘입다/벗다’의 경우 공간적 관계를 나타내는 방향 반의어이다.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빛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도 빛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빛은 정말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의 관점에서 빛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빛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탐구해 왔다. 빛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7세기부터 시작되었는데, 시간이 ㉠ 지나면서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게 되었다.

최초로 빛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물리학자는 19세기 영국의 맥스웰이다. 그는 그 당시 알려진 전기학과 자기학을 집대성하여 전자기학을 완성하고 전자기파를 이론적으로 예측하였다. 그에 따르면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두 성분으로 갖는 전자기 파동이다. 이 둘은 서로 수직인 상태로 서로가 서로를 유도해 가며 같은 방식으로 진동하고, 이 진동에 수직인 방향으로 진행한다. 그러므로 맥스웰에 따르면 빛은 파동이다.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으로 빛의 정체를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20세기 초, 빛에 관하여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생긴다. 빛의 속도는 우주에 존재하는 속도의 상한선으로서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탄생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미시 세계를 다루는 학문인 양자 물리학은 빛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음을 알려 주었다. 즉 빛 에너지는 최소 덩어리 단위로만 전달되는 입자라는 것이다.

이로써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에 관한 오래된 논쟁은 20세기 들어서 빛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종결되었다. 빛은 여러 현상으로 자신이 파동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 주지만, 정밀한 검출기에서는 자신의 에너지를 알갱이, 즉 입자의 형태로 나뉜다는 이중성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파동이면서 입자이기도 한, 둘 다의 모습을 띤 이중적인 빛은 정말 ‘이상한’ 존재이다.

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19세기 때 빛이 우주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② 아인슈타인의 발견은 최초로 빛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는 과학적 의의가 있다.
- ③ 20세기 전의 학자들은 빛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 ④ 맥스웰은 빛의 성분을 분해하면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8. 윗글의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버스가 한강 다리를 지나고 있다.
- ② 비는 열흘이 지나도 그칠 줄을 몰랐다.
- ③ 그의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아니한다.
- ④ 계속되는 폭우로 영산강의 수위가 한계 수위를 지나 계속 불어났다.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물이 있다. 종류도 많고, 종류가 같더라도 다양한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세상이 무척 복잡하다고 ㉠ 생각한다. 몬드리안은 세상의 그런 겉모습만을 그리고 싶지 않았다. 겉으로 ㉡ 노출된 것을 넘어 근원적인 형상을 표현하고 싶었다. 몬드리안이 보기에 자연은 매우 단순하고 분명한 원리를 따르는 세계였다. 아무리 복잡하고 제각기 달라 보여도 사물들 안에는 보편적인 질서와 규칙이 있고, 질서와 규칙은 매우 단순한 원리로 수렴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화가로서 표현해야 할 것은 복잡해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단순하고도 절대적인 규칙이었다. 파인먼은 제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현상도 그 근본 법칙은 단순하다며, “버릴 게 무엇인지 알아내라.”라고 말했다.

몬드리안과는 달리 기하학적인 추상이 아니라 서정적인 색면 추상으로 추상 미술의 정수를 보여 준 화가가 있다. 러시아 출신의 유대계 미국인 화가 마크 로스코이다. 로스코의 그림은 몬드리안의 그림처럼 사각형이 주축이다. 물론 몬드리안이 애초부터 사각형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사물과 공간을 단순화해 표현하다 보니 수직선과 수평선만 사용하게 되었고, 이것이 겹쳐져 ㉢ 다양한 크기의 사각형이 나오게 되었다. 반면 로스코는 아예 선을 사용하지 않고 색면 위주로 화면을 구성했는데, 이 구성이 대체로 두세 개의 사각형으로 귀결되곤 했다. 다만 로스코의 사각형은 엄격한 기하학적 사각형의 꼴을 이루고 있지 않다. 경계가 불분명해 어렴풋이 느끼게 되는 사각형이다. 형태 자체를 하나의 면으로 최대한 단순화함으로써 색채의 뉘앙스가 ㉣ 풍부히 살아나도록 하다 보니 어렴풋한 사각형 면들로 귀착되었다 하겠다.

9.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몬드리안이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은 사물들 안의 보편적인 규칙과 질서이다.
- ② 파인먼은 세계가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그 근본 법칙도 단순하지 않다고 보았다.
- ③ 로스코의 그림에서 사각형이 주축이 된 이유는 그가 그림에 선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 ④ 몬드리안과 로스코는 서정적인 색면 추상으로 추상 미술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10. 윗글의 ㉠~㉣과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 여긴다
- ② ㉡: 드러난
- ③ ㉢: 어지간한
- ④ ㉣: 풍성히

11.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배재학당에 다니던 주시경은 서재필이 창간한 『독립(립)신문』의 회계사 겸 교정원으로 발탁되었다. 주시경은 신문의 교열을 맡았던 것을 계기로 국문 철자법 통일 방안을 연구했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국문동식회(國文同式會)를 만들었다. 국문동식회는 회원들끼리 새로운 철자법을 같이 쓰자는 취지로 결성되었는데, 이 모임의 궁극적 목적은 주시경의 국문 철자법을 확산시켜 어문 규범을 확립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1908년 국문 철자법의 보급과 연구를 본격화하기 위한 토대로 ‘국어연구학회’를 설립했다.

- ① 주시경은 『독립(립)신문』 창간을 주도한 뒤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교정원이 되었다.
- ② 국문동식회는 국어연구학회의 연구 성과를 대중에게 보급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 ③ 국어연구학회는 국문 철자법 확산을 위해 주시경이 배재학당 내에 설립한 학생 자치 모임이다.
- ④ 주시경은 신문 교열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문 철자법 통일 연구를 시작했다.

12.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논증이란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려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 간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논증의 요소에는 주장, 이유, 근거, 예상되는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 등이 있다. 논증이 담긴 글을 읽을 때는 논증 요소 간의 관계를 살펴 논증의 타당성과 논증 방법의 설득 효과를 평가하고, 자신의 관점을 세워 논증을 재구성하며 읽는 것이 좋다.

글을 쓸 때는 내용 전개에 일반적 원리를 고려하여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내용 전개에 일반적 원리에는 시간적 순서의 원리, 공간적 순서의 원리, 논리적 순서의 원리 등이 있다. 특히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글을 쓸 때는 주장, 이유, 근거의 논리적 관계를 고려하여 내용을 전개해야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다.

- 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정당함을 입증하는 방식을 논증이라고 한다.
- ② 논증이 담긴 글을 읽을 때는 주장, 이유, 근거, 예상되는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의 관계를 살펴 논증의 타당성과 설득 효과를 평가한다.
- ③ 논증이 담긴 글을 읽을 때는 자신의 관점을 배제하고 논증 요소 간의 관계를 살펴 읽는다.
- ④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을 쓸 때는 주장, 이유, 근거의 논리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13. 다음 글에서 ㉠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대표적인 저항시인으로는 윤동주와 이육사 두 시인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한글로 된 아름다운 시편을 남겼다는 점 외에도 평소 투철한 민족정신으로 그들의 삶을 일관했다는 점, 일제에 체포되어 머나먼 이국의 감옥에서 순국하였던 점, 생전에는 시집을 내지 못하였다가 해방 이후에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유고 시집의 형태로 자신의 시집을 발간할 수 있었던 점 등이 공통적이다. 물론 이러한 설명만으로 그들 작품에 나타난 저항 정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 역사의 가장 불행했던 시기에, 민족의 소중한 문화 자산으로서의 한글로 된 시를 어떻게든 보존하며, 지켜나가려 했던 이들의 노력은 그 의미가 결코 과장되어서도, 축소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같은 저항시이긴 하지만, 그 성격이나 내용상으로 이들의 시는 각기 특징적인 국면을 지니고 있다. 윤동주가 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바탕을 둔 영혼의 섬세함 내지 순결함과 그것으로 인해 빚어진 비극적 현실 인식 및 회생정신을 강조했다면, 이육사는 유교적 가치 질서를 담은 남성적이고 대륙적인 호방함과 매운 절개를 추구하는 지사적 풍모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 절절은 우리 민족의 장래에 대한 전면적인 위기의식과 그럼에도 그들 내면에서 결코 포기될 수 없었던 민족사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일 것이다. 그들이 모두 이 시기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비극적으로 바라보았음에도 문학사상 수준 높은 저항 시인으로 기억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① 현실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문학적 기교를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다.
- ② 저항의 수단으로 한글보다는 이국의 언어를 사용하여 민족의 현실을 알렸다.
- ③ 서구의 기독교적 가치와 전통적 유교 가치를 하나로 통합하려 노력하였다.
- ④ 민족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민족사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14. <보기>의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빈칸에 들어갈 전제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전제] 건강에 좋은 모든 음식은 영양가가 높다.

[전제]

[결론] 그러므로 이 사과도 영양가가 높다.

- ① 이 사과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다.
- ② 모든 사과는 영양가가 높지 않다.
- ③ 모든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다.
- ④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면 영양가가 높다.

15. (가)~(라)를 맥락에 맞추어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가) 곰팡이는 다른 생물에 비해 약점이 많다. 광합성을 해서 먹을거리를 스스로 챙기지도 못하고, 운동성이 없으니 위험을 피해 도망칠 수도 없다.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미생물에 비하면 빨리 자라지도 못한다. 다양한 미생물 사이에 혼자 뚝 떨어진다면 도태되기 딱 좋다.
- (나) 각 단계의 화학 반응을 하는 데 효소 하나가 필요하고, 그 반응의 결과로 대사 물질 하나가 합성된다. 그 대사 물질이 다른 효소와 반응하여 또 다른 물질로 전환되고, 이런 과정이 여러 단계 이어지면 최종 산물이 합성된다.
- (다) 대사는 생물체가 섭취한 영양물질을 몸 안에서 분해하고 합성하여 이용한 뒤 배출하는 과정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대사 결과로 만들어지는 물질을 대사 물질이라고 한다. 곰팡이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사는 여러 단계의 화학 반응을 거친다.
- (라) 그럼에도 이들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극한 환경에 퍼져 나가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곰팡이의 생존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곰팡이가 수많은 약점을 극복하고 살아남는 동안 환경에 적응하며 얻은 다양한 대사 능력 덕분이다.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라) - (다) - (나)
- ③ (다) - (나) - (라) - (가)
- ④ (다) - (라) - (나) - (가)

16.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지능'과 '지성'에 대한 이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저는 지능(知能)과 지성(知性)을 좀 구별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능은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능력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인지 능력이죠. 그런데 지성은 어떤 상황에 내 자신을 투영해 보고 반성해 보는 것까지 포함해야 해요. 저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집단 지능을 흉내 내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인터넷 공간에 쌓아 놓은 데이터를 모아 원하는 결과를 되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 점점 더 발달하면 지성적으로 보이는 인공지능이 나타나겠죠. 불가능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의 지성을 흉내 내는 수준이겠죠. 인간의 감정을 지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계로 접근하면 우리가 또 한 발짝 달아나겠죠.

- ① 지능은 인지 능력에 해당한다.
- ② 지능은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능력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은 집단 지능에 가깝다.
- ③ 자기 자신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이 지성이다.
- ④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기계적 처리 능력이 지성이다.

17.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국어의 표준 발음법 규정 중 ‘받침의 발음’에는 겹받침의 발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첫째, 겹받침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ㄷ]로 발음한다. 다만, ‘ㄷ-’은 자음 앞에서 [뉘]로 발음한다. ‘여덟’의 경우 [여덜]로 발음하지만 ‘뉘다’의 경우 [뉘:따]로 발음하는 것이 그 예이다. 둘째, 겹받침 ‘ㄷ, ㅌ,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ㅌ, ㅌ]로 발음한다. 1음절 ‘닭’의 경우 [닥]으로 발음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뉘고’를 [뉘꼬]로 발음하는 것처럼, 용언의 어간 말음 ‘ㄷ’은 ‘ㄱ’ 앞에서 [ㄷ]로 발음한다.

- ① ‘뉘는’을 발음할 경우, 겹받침 ‘ㄷ’은 [ㄷ]로 발음한다.
- ② ‘뉘게’를 발음할 경우, 겹받침 ‘ㄷ’은 [ㄱ]으로 발음한다.
- ③ ‘뉘다’를 발음할 경우, 겹받침 ‘ㄷ’은 [ㅌ]으로 발음한다.
- ④ ‘뉘고’를 발음할 경우, 겹받침 ‘ㄷ’은 [ㄷ]로 발음한다.

18. 다음 글의 논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외모’가 아무리 타인에 의한 평가라고 해도 그것이 절대적인 척도가 된다면 조금은 자신감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에 ‘완벽한 몸매’란 것이 존재한다면 몸을 다듬어 그런 몸매를 유지하면 분명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 완벽한 몸매의 척도가 바뀌면 사라진다.

한 예로 3킬로그램 감량의 다이어트 목표를 달성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때까지 입지 못했던 옷을 멋지게 입을 수 있고 자신감이 생긴 듯한 기분도 들 것이다. 그러나 집 밖으로 한걸음 내디디면 ‘나보다 더 마른 사람’, ‘나보다 더 스타일이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이어트의 성공으로 생긴 자신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

‘나보다 더 스타일이 좋은 사람’이 세상에서 모두 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스타일만 좋아지면 자신감이 생길 것’이란 생각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더욱이 마른 몸매를 유지하는 것도 무리한 다이어트로 만든 것이라면 오래가기 어렵다.

타인이 내리는 ‘상대평가’만큼 불안정한 것은 없다. 이 불안정은 타인의 평가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혹시 나쁜 평가를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식으로 강박 관념이 되어 자신을 짓누르고 의혹과 불안감을 한없이 키워나간다.

- 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우월감은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건강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 ② 자신감의 근거를 가변적인 외부의 조건에 둘수록 개인의 심리적 안정은 타인의 시선에 종속된다.
- ③ 부단한 자기 계발을 통해 타인보다 우월한 조건을 갖추는 것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 ④ 외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확립된다면 개인의 불안감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 언어의 소리와 의미 사이의 임의적인 관계를 흔히 언어의 자의성이라 해. 자의적이란 임의적이라고 바꾸어도 좋은데, 어떤 소리와 그 소리가 나타내는 개념 사이의 관계가 ㉠ 이 아니고 우연적이라는 뜻이야.

을: 응 맞아. 그런데 언어의 소리와 의미가 전적으로 자의적인 것만은 아니더라고. 언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어 ‘꼬끼오, 꼬꼬’와 영어의 ‘cock-a-doodle-doo’ 등 의성어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유사성은 음성과 의미가 ㉡ 이지만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야.

갑: 그렇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어. ‘꼬끼오, 꼬꼬’와 ‘cock-a-doodle-doo’의 소리가 완전히 같지는 않기 때문이야. 만약 한 단어의 의미와 소리가 모든 나라에서 모두 동일하다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든. 결국 각 나라의 언어의 소리가 다르다는 것은 자의적임을 더 증명해 주는 거라 볼 수 있어.

19. 윗글에서 ㉠과 ㉡에 들어갈 말을 옳게 짝지은 것은?

- | | ㉠ | ㉡ |
|---|-----|-----|
| ① | 사회적 | 역사적 |
| ② | 인과적 | 분절적 |
| ③ | 필연적 | 역사적 |
| ④ | 필연적 | 자의적 |

20. 윗글의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갑은 언어의 소리와 의미 사이의 관계가 반드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의성’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 ② 을은 한국어와 영어의 의성어 표현이 서로 다른 이유를 각 언어가 가진 음운 체계의 필연적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③ 을은 의성어가 실제 소리와 유사성을 가진다는 점을 근거로, 언어의 자의성이 절대적인 법칙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 ④ 갑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언어권마다 소리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언어의 자의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